

제7회 한·일 어촌어항 기술교류회의의 성료

수산 기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어촌어항의 중요성
- 漁港이 중심이 된 어촌어항의 중요성 공동인식



제7회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가 한국어항협회와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6일 일본 가고시마시 소재 시로야마 관광호텔에서 한·일 양국 어촌 어항 어장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증양식업을 배려한 어항어장 정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내용의 시의성과 질적향상을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다양한 수계(水界)산업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의 산·학·연 관계자들은 수산업과 어촌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어촌 관광 등이 연계된 수계산업(일본에서는 海業으로 표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상호 교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도쿄 해양대학 료 쇼하 교수는 기초 강연에서 “어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관광을 포함, 바다를 소재로 한 새로운 생업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수요, 어가경영, 어촌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고도화에 대응한 어항 및 수산기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가고시마현 임무수산부 모리나가 아키라 어항과장이 ‘하기시정에서의 어류 양식과 어항시설 배치에 관해’, 국립수산과 학원 수산연구원 김창길 박사가 ‘연안 생태를 고려한 어항시공’, (주)한아엔지니어링 정형태 부회장이 ‘다기능 환경친화형 호안공법에

관한연구(소파파형 블록)’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본 회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어촌어항 어항을 종합적으로 정비, 어촌관광 등 어업의 소득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고시마현내 아쿠네어항, 우스이어항 등을 시찰했다.

한·일 양 협회는 지난 97년부터 양국의 어촌어항어장 등 수산 기반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과 어촌어항인들의 우의를 다지는 목적으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기술교류회의를 열고 있다. (관련기사4~5면)

공 지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

한국어항협회는 일반국민들의 어촌·어항·어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제9회 어촌어항어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출품규격은 8"×10" 칼라사진, 출품기간은 10월 1일~5일이다. 주제는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내수면포함), 어촌어항어장 전경, 해양문화·어촌관광 등과 관련되는 미발표작품에 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이트(www.fipa.or.kr) 참조
- 문의 : 한국어항협회 기술홍보실 (02)3673-2854 syt@fipa.or.kr